

H A M S E U N G H O O N

홀로 두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함승훈 이사장의
자녀교육기

아빠의 기적

함승훈 지음



중앙books
JoongAng ilbo

나는 70점짜리 아빠입니다

만27세 결혼, 29세 창화아빠, 31세 창수아빠, 34세 아내와 사별, 35세 박사학위, 35세 대학교수, 50세 거창국제학교 설립, 57세 가조국제의료봉사공동체 창립……. 뒤돌아보면 정말 ‘희노애락’이 담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었다는 사실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더욱 더 절실히 느껴진다.

순간순간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창화, 창수가 아내의 산고 끝에 건강한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우렁찬 울음으로 세상에 신고식 하던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은 나의 서른네 살 생일날, 앙상하게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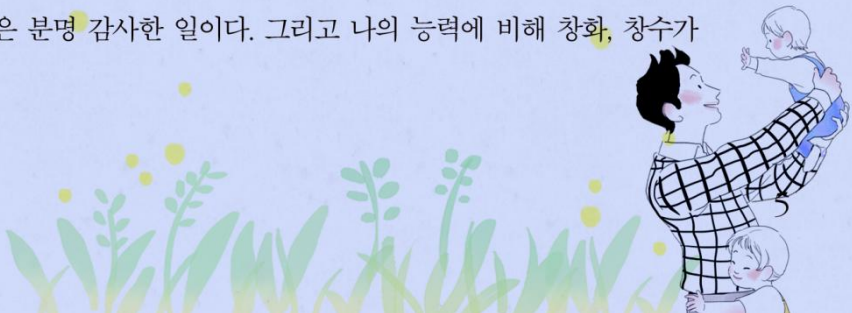
르고 의식도 없는 아내의 손이 나의 손에서 떨어져 가며 마지막 숨을 거둔 그때이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인간인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도 야속했다.

아내는 떠나고 없었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창화, 창수를 나에게 남겨주었다. 그 후의 시간들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저 세상에서 슬퍼할 아내를 생각하며 나는 오래 슬퍼할 수가 없었다. 아내 없이 100퍼센트의 부모는 될 수 없겠지만 나 혼자서라도 70퍼센트쯤은 채워주리라 다짐했다.

올해 헝가리 데브레첸의대를 최고 성적인 ‘숨마쿰라우데^{summa cum laude}’로 졸업하며 유럽연합통용 의사면허를 취득한 창화, 창수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여보, 나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창화, 창수 열심히 잘 키웠지?’

자식이 태어나 부모가 되는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흥분되는 일이다. 또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이……. 하지만 역으로 만약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부족한 나를 양육을 책임지는 아빠로 선택해주었다. 기적과도 같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 이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에 비해 창화, 창수가



올바르게 성장해준 것 또한 기적이라 믿는다.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篤심으로 밀어붙인 아빠식 교육
아이의 밝게 빛나는 미래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명쾌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교육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나는 큰 그림에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들만 놓아주었을 뿐이라고. 징검돌 하나를 내놓으면 아이가
한 걸음 건너오고, 다음 징검돌을 하나 내놓으면 또 아이는 그 돌을
밟아 건너오고, 이렇게 한 걸음씩 따라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그림
보다 더 큰 미래를 아이들 스스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 가족의 선택을 두고 “왜 하필이면 헝가리 의대야?”라고
비아냥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창화, 창수가 독일에
서 김나지움을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국 푸켓에 있는 델위치 영국
학교Dulwich College British School로 전학 갔을 때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태국
이야?”라고 했듯이. 이름난 학교에 가기 위해서라면 가지 않았을 길
을 선택해왔다. 우리 아이들과 나는 이름값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을
원했을 뿐이다. 학교 이름이나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헝가리 데브레첸의대는 국내에는 잘 알려
지지 않은 유럽의 명문의대다. 데브레첸의대의 졸업학점은 360점으
로 국내보다 약 70~80학점을 더 이수해야 하고, 생화학교실 교직원
수만 178명으로 국내보다 월등히 큰 규모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내가 창화, 창수를 태국의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을 믿는다. 글로벌 의사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우리 아이들의 소망에 딱 맞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택했고, 그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 후 창화, 창수를 키우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주변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어쩌면 내가 남자여서, 아빠라서 쉽게 풀어진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에 아이의 교육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이 이 책을 통해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이제 내 앞에는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는 육으로 낳은 자식인 창화, 창수와 가슴으로 낳은 거창국제학교 제자들이 있다. 가조국제의료봉사공동체의 글로벌 의사로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인술을 베풀며 활동하는,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이룰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정을 나선다.

함승훈

